〈기획 논문 : 중국 관행 연구의 경계와 확장〉

중국 개조론(改造論)과 낡은 지배구조의 지속에 대한 저항(1915-1929): 공산당 내부의 개조 각축을 중심으로*

김 판 수**

목차

I. 서론
II. 중국 개조론의 형성과 분기
1. 일본과 중국의 개조 개념 차이
2. 5·4운동 직후 개조론의 분기
III. 국공합작과 공산당 내부의 개조론 각축
1. 국공합작의 굴곡과 공산당 개조론의 구성 과정
2. 국공합작 파국과 당내 개조를 둘러싼 각축
IV. 결론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09-362-A00002). 세 분의 심사위원 및 장정아 선생님의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www.kci.go.kr

Ⅰ. 서론

2021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다. 중공 100년의 역사는 오늘의 권위적 당-국가 체제를 떠받칠 낡은 주춧돌이 될까 아니면 무겁게 짓누르는 바위가 될까? 1949년 건국 이전 공산당은 자신을 지지하던 대중들조차 보호할 수 없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 공산당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자신을 개조[1] 대상으로 삼았고, 그 때의 시행착오들이 당을 혁명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1927년 국공합작 파국 이후 1929년까지 공산당 지도자들은 '올바른 당 개조 방법'을 둘러싸고 상대방을 '반혁명'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20세기 초 중국 개조론 맥락에서 창당 이후 공산당이 왜 당 외부와의 갈등 보다 오히려 당 내부에서 더욱 심각한 갈등을 겪어야 했는지, 나아가 1929년까지 전개된 당내 각축의 누적이 어떻게 공산당이 지향해야 할 혁명을 '낡은 지배구조의 지속에 대한 저항'으로 이끄는 토대를 구성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중국 개조론 연구는 오늘날 중국 내 연구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이다. 이를 몇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중국의 개조 개념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근본적, 총체적, 철저한, 완전한 변혁의 의미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羅志田, 「整体改造和点滴改革:"問題与主義"之爭再認識之二」, 『歷史研究』, 2005(5), 101-105쪽을 참조하라. 이는 신문화운동 시기부터 지식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다가 1차 국공합작 시기를 거치며 점차 공산당 인사들의 혁명 담론으로 수렴되었다. 둘째, 공산당이 자기변혁을 통해 지도부에서 기층 대중까지 이르는 조직화 방식을 '아래로부터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의 상호작용 체계로 변화시켜야한다는 의미이고, 공산당의 자기개조 문제와 관련이 깊다. 이는 김판수, 「중국공산당의 자기개조와 당-대중 개조체계의 형성(1935-1945)」, 『중소연구』, 제38권 제4호, 2015를 참조하라. 이 논문은 개조 개념이 어떻게 전자에서 후자의 의미로 연속과 단절을 통해 변화되었는지, 특히 개조 개념이 왜 공산당 조직화 방식에 대한 '혁명화' 담론 및 실천 의미로 수렴되었는지 분석한다.

www.kci.go.kr

첫째, 중국 개조론 연구는 주로 신문화운동 시기 러시아혁명과 5·4운동의 영향으로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된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혁을 통한 새로운 국가 만들기 담론 및 그 사회문화적 효과를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다.[2] 당시 개조론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등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통해 재생산되었지만, 이 시기의 개조론에 대한 연구는 그 의미를 5·4 시기 전후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상황 및 개별 지식인의 독특한 담론으로 제한하기에, 개조론이 이후의 현실 정치 영역에 미친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혁명 시기 공산당의 사회개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때 개조론은 공산당의 혁명 과정에 대한 동원론 및 사회경제적 개혁론 등의 시각이 다루고 있는 감조감식(減租減息), 기층 민주선거, 대중 조직화, 사회문화적 선전 및 교육, 나아가 건달 또는 한량에 대한 개조(二流子改造) 문제 등에 한정된다.[3] 이러한 논의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공산당의 공식 역사 담론에 의거하여 혁명 시기의 공산당 개조론에 대한 해석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공산당이 사회를 혼란스러운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질서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다룬 것으로, 주로 위

2)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胡繩, 『胡繩論"從五四運動到人民共和國成立"』, 社會科學溫馨出版社, 2001; 羅志田, 앞의 논문; 羅志田, 「從新文化運動到北伐的文化与政治」, 『社會科學研究』, 2006年, 第4期; 王先俊, 「論"五四"后的社會改造思潮」, 『安徽師范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9(2); 劉集林, 「"造社會"与社會改造－－以五四前后傅斯年的思想爲中心」, 『广東社會科學』, 2010(6); 鄒小站, 「政治改造与社會改造:民初的思想爭論」, 『史林』, 2015(1). 이러한 연구들이 중국 개조론 연구의 중추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종종 그 이전 시기의 정치사회적 갈등 분석에도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何文平, 「知識冲突還是政治反抗 - 广東地方精英對民初革命党人社會改造的抵制」, 『社會科學研究』, 2009(4) 이다.

3) 대표적인 연구는 黃正林, 「1937-1945年陝甘宁邊區的鄉村社會改造」, 『抗日戰爭研究』, 2006(2); 朱蓉蓉, 「論陝甘宁邊區的二流子改造運動」, 『社會科學戰線』, 2008(12); 韓曉莉, 「抗日根据地的戲劇運動与社會改造」, 『抗日戰爭研究』, 2011(3) 등이 있다.

www.kci.go.kr

로부터의 관리 또는 통제 기제를 통해 사람과 조직 등에 대한 포섭/배제 및 전통적 관습과 기존 제도 등에 대한 개혁/제거 등과 관련이 있다.[4]

넷째, 건국 이후의 '사상개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는 주로 중국 외부 학자들의 영역이지만, 중국 내에서는 첸리췬이 반우파투쟁 및 문화대혁명 시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을 재조명하고 있다. 첸리췬은 반우파투쟁 시기 공산당의 사상개조를 비판하면서, '올바른 개조'를 5·4 시기의 개조에만 한정하고, 공산당의 개조를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 억압에 동원되는 '수단'으로만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5]

다섯째, 일부 지식인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등장했던 '열등한 중국 국민성 담론'을 루쉰의 "국민성개조" 개념과 연결시켜 이를 중국 개조론의 중요한 갈래로 규정하는데, 이는 오늘날 당-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민의 사회문화적 소양(素質)을 제고함으로써 문명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6] 이러한 국민 문명화 담론은 오늘날 각 관공서, 학교, 광장, 대로 등 공공장소는 물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일상 공간 내부로 깊이 침투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 내 개조론 연구자들은 1919년 5·4운동 이후 지식인들의 사회변혁 담론에 불과했던 개조론이 왜 공산당의 혁명 담론으로 전환되었

---

4) 대표적인 연구는 康景星, 「貴陽市的接管与社會改造綜述」, 『貴州文史叢刊』, 1996(1); 王善中,「建國初期的社會改造」,『歷史教學月刊』, 1997(8); 付啓元·盧立菊, 「試述南京解放初期的社會改造」,『江南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4(4); 楊麗萍, 「論新中國成立之初政府對社會异質性的消解 - 透過上海游民改造的分析」,『江蘇社會科學』, 2009(4); 李小尉,「論建國初期儿童救濟組織的社會改造」,『求索』, 2011(8).

5) 첸리췬 / 길정행 외 역,『망각을 거부하라 - 1957년학 연구 기록』, 그린비, 2012, 33-34쪽.

6) 대표적인 연구는 鮑霽,「論魯迅改造國民性思想的發展」,『社會科學輯刊』, 1981(5); 王學鈞,「改造國民性-近現代文學的內在聯系」,『蘇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7(2); 陳高原,「辛亥革命与改造國民性思潮」,『開放時代』, 1988(7); 默水,「思想的分量-魯迅"立人"与"國民性改造"思想散論」,『北京科技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7(3); 柯平凭, 「再談改造國民性与建設公民社會」,『武陵學刊』, 2015(1).

www.kci.go.kr

는지, 어떻게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기제가 되었는지, 그 것이 당을 혁명정당으로 성장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과하고 있다.[7] 이는 1949년 건국 이후 형성된 당-국가 및 그에 의해 구성된 공식 역사 담론이 건국 이전 시기 '당의 역사' 해석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당 지도부 내부의 갈등에 대한 해석에서 두드러진다. 당시 중공 내부의 갈등에 대한 분석은 회고적 접근(retrospective approach)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찾고 그 개조에 고심하던 일종의 '청년기'라는 시각으로부터 전망적 접근(prospective approach)을 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식 역사를 수정·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착오의 역사적 궤도' 자체를 다시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개조론이 중국에서 확산되던 시점인 1915년부터 공산당 지도자들 간의 개조 각축이 일단락된 1929년까지 다룬다. 20세기 초 중국의 개조론은 사회진화론에 영향받은 지식인들이 청년 또는 대중을 가리키며 '나라 살리기'에 참여하라고 다그치는 담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 및 1919년 5·4운동을 계기로 지식인들은 대중을 중요한 정치사회적 역량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중 다소 급진적이었던 부류는 대중을 중요한 정치적 주체 또는 동반자로 여기기도 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개조는 일본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혁적 실천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5·4운동 이후 중국 개조론은 점차 중국 내 정치적 소수자 집단이 '새로운 국가 만들기' 또는 '혁명' 등을 꿈꾸며 지배집단(또는 집단 내 다수자 포함)에 대한 적대와 비판 등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변화되어 갔다.

7) 실제로, 중국 혁명 과정에서 개조론은 공산당이 어떻게 대중의 지도자로 변신할 수 있는지 또 대중이 어떻게 공산당의 개혁가로서 성장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정치적 담론, 실천, 제도화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김판수, 앞의 논문을 참조하라.

www.kci.go.kr

II. 중국 개조론의 형성과 분기

1. 일본과 중국의 개조 개념 차이

초창기 일본의 개조 개념은 사회진화론의 영향 속에 일본인의 정신을 비하하며[8]서구적 근대화를 강화하자는 담론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일본 지식인들은 서구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후 개조 개념은 전통 시기 일본인의 우월한 정신을 재건(reconstruction)[9]하는 의미로 변화되었고, 특히 국민에게 국가 발전과 영토 확장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일본의 개조는 주로 사회와 경제 영역 등에 관한 담론에 활용되었다. 1882년 오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己)는 『사회개조신론』에서 사회개조를 공장의 비효율, 빈민, 매음, 무직자 등 사회적 문제 요소 및 사회불만 세력 일소라고 규정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산주의적 사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88년 코무로 시게히로(小室重弘)는 [진정 아름다운 부인 : 개조사회]에서 전통적 구속으로부터 여성들을 변화시켜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진정 아름다운 '신일본 부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80년대 출판된 『일본인종개량론』(1884)에서는 서양인에 비해 열등한 신체를 극복하기 위해 잡혼을 장려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1910년 우미

8) "나카무라 마사아노는 1875년 [인민성질을 개조하는 설]에서 일본인은 노예근성을 가지고, 아래에 교만하고 위에 아첨하는 인민이며, 직분을 돌보지 않고, 게으르고 인내심이 없는 인민이라 비판했다." 차태근, 「량치차오와 중국 국민성 담론: 국민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현대문학』, 제 45호, 2008, 18쪽.

9) 당시 remaking 과 rebuilding 도 '개조'로 번역되었지만, 1880년대 이후 reconstruction 은 사회개조 혹은 철학 개조 등과 관련된 번역서를 포함하여 일본 국내에서 발행된 서적들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919년 발행된 와세다대학출판부(早稻田大學出版部)의 [세계 개조 총서] 5권에도 표지에 reconstruction과 改造가 병기되었다.

www.kci.go.kr

노 유키노리(海野幸德)는 『일본인종개조론』에서 근친, 음주, 자선 행위까지도 불량 유전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인종 개조론의 변화에서 드러나듯, 19세기말과 달리 20세기 초 일본에서는 '일본=전통 / 서구=근대'로 등치되지 않았다.

이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장기간에 걸친 국가 총력전 승리 경험이 누적된 결과였다. 전쟁 승리에 도취될수록, 지식인들은 '물리적 발전 단계에서 정신적 발전단계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우치다 로안(內田魯庵)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전쟁은 승리했다. 동아시아의 반문명국은 일약 일등국의 반열에 들었다. 이에 걸맞게 문예기술은 말할 것 없고 사회 전반의 분야에서 일등국이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진정한 일등국이기 위해 무력만이 아니라 지력도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20세기 초 러일전쟁 승리 이후 나츠메 소세키(夏目金之助)는 결코 서양에 뒤지지 않는 지적 능력이 일본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10]

일본 개조론은 1917년 러시아 혁명 및 1918년 독일 혁명 등 서구 전제국가들이 잇따라 붕괴하자 일대 전환을 맞이했다. 지식인들은 천황제 또한 러시아와 독일처럼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졌다. 따라서 러시아 혁명은 일개 국가적 사건이 아니라 서구 문명국의 내적 모순 심화 징후로 여겨졌고, 이들은 '세계 개조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지식인들은 세계 개조 시대의 도래가 위기이면서 동시에 일본이 서구보다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1919년 와세다대학출판부(早稻田大學出版部)는 [세계 개조 총서(The World Reconstruction] 5부작을 펴내기도 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스즈키 우메시로는 『일본개조의 의의와 그 강령』을 저술했다. 그는 천황제의 우월성을 일본

10) 윤상인, 「국민 속의 『마음』 : 국민국가에 있어 정전이란 무엇인가」, 윤상인 외 편, 『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2006, 216-217쪽.

www.kci.go.kr

전통의 국가-사회 관계의 우월성으로 등치시켰고, 이를 다시 세계적 우월성으로 확장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국민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국체를 전복한 적 없는 애국적 신민이기에 서구보다 더 우월한 전통적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11] 일본인의 온화한 순수성을 근대적으로 개조할 때, 일본은 국제연맹의 주도적 국가로 변신할 수 있다.[12] 백인은 '공통 질병'으로 인종에 대한 반감을 내면화하고 있지만, 일본인은 영국·미국·프랑스 국민보다 '개방성, 온화함,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어서 인류평화의 사도로서 가장 적절한 자격이 있다. 따라서 그는 일본이 유색인종의 희망이자 광명이고 인종간의 결합을 주도할 유일한 국가라고 규정했다.

중국의 개조 개념 형성 또한 일본처럼 사회진화론 수용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그 것은 시작부터 다른 경로로 전개되었다.

1870년대 말 영국에서 유학한 옌푸(嚴復)는 청일전쟁 이후 사회진화론을 역술 및 번역하며 '新' 개념을 활용하여 중국의 열등한 국민성 담론 확산을 추동했다. 1898년 옌푸는 헉슬리의 *Evolution and Ethics*를 『천연론』으로 역술하고,[13] 1903년에는 스펜서의 *The study of sociology*를 『군학이언(群學肄言)』으로 번역했다. 옌푸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근본적 이유로 중국 국민의 소양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했고, 스펜서의 지덕체론에 근거하여 중국인의 민력(신체), 민지(사고와 정신), 민덕(의

11) 鈴木梅四郎, 『日本改造の意義及其綱領』, 實生活社出版部, 1919, 96-103쪽.

12) 같은 책, 329-332쪽.

13) 그는 'evolution'을 일본의 번역어인 '진화'가 아닌 '천연(天演)'이라고 번역하고 또 'nature'를 '天'으로 번역함으로써 투쟁하는 자연의 의미를 중국 전통 사상에 의거 조화된 세계로 재현했다. 박홍규·조계원, 「옌푸(嚴復)와 번역의 정치 : 『천연론』에 담긴 '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4호, 2012, 34-38쪽. 옌푸가 중국에 소개한 진화론과 그 지적 충격의 사회적 효과와 관련하여 민홍기, 「청말 진화론 담론과 중국기독교 - 인류 기원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2015, 66-71쪽을 참조하라.

www.kci.go.kr

회와 시민권 등)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14] 또 중국인의 3대 병폐로 빈곤, 유약함, 우매함을 꼽고 그 중 우매함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15]

옌푸의 국민성 담론은 정치 엘리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량치차오는 사회진화론에 근거하여 民이 변화되어야 국가도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법운동 실패 후[16] 1899년 일본으로 망명한 량치차오는 중국 문제의 근원을 미개하고 노예적인 민중들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에게도 新은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1902년 「신민설」에서 그는 新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본래 있는 것을 담금질하고 갈아서 새롭게 하고, 둘째, 본래 없는 것을 수집하고 보충하여 새롭게 한다(淬礪其所本有而新之, 采補其所本无而新之)."[17] 신민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잘 지키고(守舊), 새롭게 얻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취함(進取)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중국 국민의 열등성 담론이 주류를 차지하자, 1903년 쑨원 등 혁명파들은 국민성 담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국민성 논쟁은 단순한 국민 풍속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국가 수립에 관한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전개되었다.[18] 쑨원은 중국문화가 서방문화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에 중국 농민이 성숙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고[19], 1905년 8월에는 중

14) 楊志霞, 「嚴夏三民思想述評」, 『金陵科技學院學報』, 2008年03期.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중국에서의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국민성 인식은 주로 종족/민족의식과 애국심이 강하고 독립의식과 의협심 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었다. 차태근, 앞의 논문, 18쪽.

15) 김종윤, 「淸末 國民性改造論에 대한 考察」, 『중국학논총』, 2009 제28집.

16) 그는 변법운동 또한 신민의 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았다. 梁啓超, 「新民說」, 『梁啓超全集 3』, 北京出版社, 1999(1902), 654쪽.

17) 같은 책, 657쪽.

18) 차태근, 앞의 논문, 28-29쪽.

19) 전동현, 『두 중국의 기원』, 서해문집, 96쪽.

www.kci.go.kr

국 인민 수준이 타국가보다 높아 즉시 민주공화정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드러내기도 했다.[20] 국민성 논쟁 이후 1907년부터 1911년 신해혁명까지 국민성 담론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21]

신문화운동 시기 지식인들은 청년 계몽을 개조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초기『신청년』에 사용된 개조 개념은 주로 지식인들이 청년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선구자이자 계몽자로 성숙하도록 촉구하는 담론에 사용되었다. 천두슈는 1915년 9월 15일 "청년 사상 개조와 청년 수양 지도를 본 잡지의 천직으로 하고, 시사정치 비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22]라고 밝혔다. 또 류슈야는 일본 여행 중 열강 간의 경쟁이 지배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고, 1916년 10월 1일「유럽전쟁과 청년의 각오」라는 글에서 "우리 청년에게 바라길, 각자 사해(四海)를 삼킬 것을 목표로 삼아 ... 전 중국인(諸華)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민족으로 개조하라."[23]고 외쳤다. 리다자오도 1917년 4월 1일「청년과 노인」에서 "내가 우리 신중국의 신청년에게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속히 일어나 양 어깨를 치켜 올리고, 국가와 민족을 다시 만드는(再造) 책임을 맡는 것이다."[24]라고 밝혔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지식인의 문화운동은 정치운동으로 변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조는 지식인의 사회변혁 실천 문제 및 자기혁명으로 확장된다. 당시 지식인들의 관심은 근대적 개인 만들기에서 탈피하

20) 이춘복, 「중국 근대 지식인들의 '민족국가' 인식」,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호, 2010, 204쪽.

21) 김종윤, 앞의 논문.

22) 陳獨秀, 「敬告青年」, 張宝明·王忠江 編,『回眸『新青年』-社會思想卷』, 河南文藝出版社1997(1915), 3-4쪽.

23) 劉叔雅, 「歐洲戰爭与青年之覺悟」, 張宝明·王忠江 編,『回眸『新青年』-社會思想卷』, 河南文藝出版社, 1997(1913), 197쪽.

24) 李大釗. 「青年与老人」, 張宝明·王忠江 編,『回眸 ≪新青年≫-社會思想卷』, 河南文藝出版社, 1997(1917), 204쪽.

www.kci.go.kr

여 사회 개조 문제로 확장되었다.[25] 또 제국주의적 침략과 부패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계몽적 주체로서 개인적 투쟁을 실천하는 동시에 혁명가로서 정치사회적 변혁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26] 천두슈는 1918년 7월 15일 「금일 중국의 정치문제」에서 "개조는 ... 보통의 정치문제와 행정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근본적 존망과 관련된 문제"[27]라고 밝히기도 했다. 1920년 2월 1일 주시쭈는 「새로운 청년에게 고함」에서 청년의 자기혁명을 강조했다.[28]

주시쭈는 '중화민족의 혁명 전통'을 내세워 중국 개조론을 일본과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로 규정할 수 있었다.

> "다행히도 우리 중화민족의 노예근성은 깊지 않아, 진나라가 봉건제도를 타파하여 전국을 통일한 이후 2대째에 이미 그 명을 끊어버렸다(革了命了). 한나라 이후에도 비록 군주세습이었지만 ... 수백년을 넘기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수차례 혁명이 일어났다. 현재에 이르러 마침내 군주세습 제도를 타파, 즉 국가 유산을 타파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화민족의 영광이다. 서양 각국에서도 자손만대의 제왕이 없었고 항상 혁명이 일어났다. 오직 노예근성이 가장 깊은 민족이 만세토록 한 개 성씨의 군주를 가질 것이다."[29]

위의 마지막 문구는 일본의 스즈키 우메시로가 1919년 『일본개조의 의

25) 羅志田, 「從新文化運動到北伐的文化与政治」, 『社會科學硏究』, 2006年, 第4期, 2006.

26) Ip, Hung-Yok, "Politics and Individuality in Communist Revolutionary Culture", *Modern China,* 1997.

27) 陳獨秀, 「今日中國之政治問題」, 張宝明·王忠江 編, 『回眸『新青年』-社會思想卷』, 河南文藝出版社, 1997(1918).

28) 朱希祖, 「敬告新的青年」, 張宝明·王忠江 編, 『回眸『新青年』-社會思想卷』, 河南文藝出版社, 1997(1920), 214쪽.

29) 같은 논문, 214쪽.

www.kci.go.kr

의와 그 강령(日本改造の意義及其綱領)』에서 '일본 국민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천황제 국체를 전복시킨 일이 없는 유순함을 가졌기에 우월한 민족'이라는 주장을 비하한 것이다.

이처럼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일본과 중국 각국의 지식인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계와 관련하여 상반된 개조론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일본의 경우 국가에 종속된 국민을 만드는 것이었던 반면, 중국의 경우 국가를 변혁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주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2. 5·4운동 직후 중국 개조론의 분기

1919년 5·4운동 시기 대중들은 망국을 선언했다. 베이징대학 학생 등 약 3,000명은 1919년 5월 4일 천안문 앞에서 반제 및 반군벌 시위를 일으켰다.

> "국민은 반드시 국가 역적의 운명을 판결해야 한다. ... 중국 토지는 정복될 수 있어도 분단된 채 빼앗길 수 없다! 중국 인민은 죽을 수 있어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나라가 망했다! 동포들이여 일어나라!"[30]

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6월에는 각지 노동자와 상인들이 동맹 파업으로 화답했다. 이처럼 5·4운동 시기 대중은 부패하고 무능한 군벌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라 살리기'에 동참했다.[31] 군벌에 실망한 일부 청년과 대중들은 국가만능주의에서 탈피하며 점차 아래로부터의 개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32]

5·4운동이 전국적으로 대중의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할

30) 『中共党史參考資料 1』, 67-68쪽.

31) 존 듀이는 1919년부터 1921년까지 북경대학교 등지에서 강의한 뒤 "중국 어디에서나 몇 명이 모이는 곳에 가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화는 '나라 살리기'의 주제이다."라고 회고했다고 한다.

32) 君左. 「社會改造与新思潮」, 『改造』. 1920年 3月. 第3卷 第1号, 1920.

www.kci.go.kr

수 있었던 것은 신문화운동 영향이 컸다. 신문화운동은 1918년 4월『신청년』이 전통적 지식인의 상징인 문언문 글쓰기를 탈피하고 백화문으로 개편한 이후 대중의 정치사회적 관심을 포섭하려했고, 점차 시사, 노동, 여성, 생활 등 주제로 관심을 넓혔다. 당시 계몽 진영의 대중매체들은 民을 국민으로 그리고 '국가건설' 주체를 엘리트 지식인에서 국민으로 전환시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했다.[33]

이처럼 5·4운동으로 개조론의 보급과 확산은 더욱 빨라졌다. 1919년 9월 푸쓰녠은 "5·4 운동 이후 중국의 사회 추세가 변했다. ... 이제는 사회개조 운동의 시대이다."라고 평했다.[34] 후성에 따르면, 1919년 이후 약 2년간 대부분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사회개조를 통해서만 중국의 절박한 정치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35]

다만, 5·4운동 이후 대중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사회 변혁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자, 지식인들은 지식인과 대중 간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상이한 개조론을 제기했다.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개조론자는 후스(胡适)였다. 그는 1920년 4월『신조』에 「비개인주의적 신생활」을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제시된 개조론은 현실적·구체적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 "사회를 개조하는 것은 곧 개인을 개조하는 것이다. ... 사회 개조는 이 제도와 저 제도를 개조하는 것이고, 이 사상과 저 사상을 개조하는 것이며, 이 가정(家庭)과 저 가정을 개조하는 것이고, 이 학당(學堂)과 저 학당을 개조하는 것이다."[36]

---

33) 전인갑, 「근·현대 중국의 대중매체와 '국가건설'」, 『역사학보』 204, 2009, 92쪽.

34) 胡繩.『胡繩論"從五四運動到人民共和國成立"』, 社會科學溫馨出版社, 2001, 56쪽.

35) 같은 책, 56쪽.

36) 胡适, 「非个人主義的新生活」,『胡适文集 2』, 北京大學出版社, 1998(1920), 568-569쪽.

www.kci.go.kr

후스의 개조론에서 개조의 주체는 지식인이었고 대상은 대중이었다. 그는 지식청년들의 개인주의적 신생활을 독선(獨善)이라고 비판한 뒤, 지식청년들에게 사회적 신생활 참여를 통한 계몽운동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그는 영국과 미국에서의 빈민구역거류지 운동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는데, 이는 영국 지식 청년들이 빈민 아이들의 운동, 의료, 독서 등의 습관을 길러주며 사회를 개선했던 비폭력운동이었다.[37] 그러나 "청년 학생들의 '민중 속으로' 향한 조류가 아무리 넓게 번진다 한들 그들의 도덕적 열정만 갖고는 점화야 될지언정 계속 발화되기 어려웠다. 학생들이 부닥치는 가장 큰 장애는 ... 문화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 활동을 학생 신분상 하기 힘들었다."[38]는 점이다.

당시 개조론은 대중의 정치사회적 참여 맥락과 연관되면서 점차 사회주의자의 전유물로 변화되었다. 5·4운동 이후 수많은 실천적 사상 조류들이 사회주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고[39], 다양한 정치 성향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가 사회개조 사상의 일종이거나 사회주의를 일종의 사회개조 운동으로 인식했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개조 담론에 열광했다.[40] 이는 러시아 혁명 이후 일부 지식인이 제국주의 질서를 떠받치던 자유주의 대신 사회주의적 지식을 통해 유럽 국가 및 그 사회 현실을 비판했던 조건도 작용했다.[41]

---

37) 같은 글, 571-572쪽.

38) 백영서, 『중국 현대 대학 문화연구』, 일조각, 1994.

39) 이택후 / 김형종 역, 『중국현대사상사의 굴절』, 지식산업사, 1992.

40) 羅志田, 앞의 논문. 1919년 말까지 마르크스주의 관련 간행물은 200여종 가량 발간되었고, 특히 『신청년』에만 마르크스주의, 러시아혁명, 중국 노동 운동 관련 글이 약 137편 실렸으며, 이후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대중 조직, 노동 운동, 지식인과 노동자의 결합 등 광범위한 사회개조운동도 등장했다. 肖效欽·李良志 / 최윤수 역, 『중국혁명사 1』, 거름, 1990, 45-54쪽.

41) 모리스 마이스너 / 권영빈 역, 『이대조 - 중국사회주의의 기원』, 지식산업사, 1992, 44쪽.

www.kci.go.kr

리다자오는 후스와 달리 인간 정신 개조를 사회 현실 개조와 동일하게 중시했다.

> "경제조직을 개조하지 않고 오직 인류정신만 개조하면 어떤 효과도 없다. 또 인류정신을 개조하지 않고, 오직 경제조직만 개조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물심양면의 개조, 즉 영혼과 육체의 일체 개조를 주장한다."[42]

그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학이 세계 개조의 신기원을 열었던 토대로 해석하면서도[43], 마르크스·레닌과 달리 사회주의적 의식의 심대한 원천이 중국 민족의 정신에 선천적으로 깃들어있다고 보았고, '중국의 농촌 현실'에서도 혁명적 사회주의의 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44], 이는 지식인이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계급성을 개조해야만 중국 내부에서 사회변혁 역량이 생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다자오의 개조론은 기본적으로 낡은 지배구조의 해체를 목적으로 했고, 이를 위해 지식인 스스로 자신을 개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4운동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다자오의 개조론은 계몽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1919년 2월 20일 발표한 「청년과 농촌」에서 농민국가인 중국에서는 농민 해방이 곧 중국 해방이므로, 도시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농민 스스로 봉건 지배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45] 그러나, 5·4운동 이후인 1919년 9월 15일 발표한 「"소년중국"의 "소년운동"」에서 지식인들의 영혼과 육체의 '자기개조'

---

42) 『中共党史參考資料 1』, 142-143쪽.

43) 같은 책, 126쪽.

44) 모리스 마이스너, 앞의 책, 171-172쪽.

45) 李大釗, 「青年与農村」, 顧明遠 編, 『中國教育大系』(修訂版) - 20世紀中國教育(一)』, 湖北教育出版社, 809-810쪽.

www.kci.go.kr

를 주장한다.

> "내가 희망하는 소년 중국의 소년운동은 물심양면의 개조 운동이고,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일체적 개조 운동이며, 지식계급을 타파하는 운동이고, 노동자 단체에 가입하는 운동이며, 촌락 기초의 소조직을 건립하는 운동이고, 세계를 가정으로 확충하는 대연합의 운동이다."[46]

그의 개조론은 지식인을 유일한 계몽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즉, 지식인 스스로 대중과의 정치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적 자기 개조에 천착할 때 비로소 낡은 지배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혁명적 사회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았다.[47]

III. 국공합작과 공산당 내부의 개조론 각축

1. 국공합작의 굴곡과 공산당 개조론의 구성 과정

1920년 7월 레닌은 코민테른 2차 대회에서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했다. 이는 식민지 국가에서의 반제 혁명운동 촉진을 위해 혁명적 부르주아 계급의 민족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레닌이 중국에 파견한 코민테른 국제부장 보이틴스키는 리다자오와 천두슈를 차례로 면담한 후 1920년 3월 '마르크스주의 이론연구회' 설립 지원 및 9월에는 중공 발기인 대회를 주도했고[48],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거부당한

46) 李大釗, 「"少年中國"的"少年運動"」, 『李大釗全集 3』, 人民出版社, 2006(1919), 14쪽.

47) 리다자오의 개조론은 마르크스의 논의 속에서 발견한 것을 중국 현실에 적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 포이에르바하 3번테제에서 "교육자 자신도 반드시 교육되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www.kci.go.kr

국민당에도 접근했다.

코민테른과 접촉 이후 쑨원은 1922년 9월 6일 국민당 재조직화를 위한 개진(改進)을 통해 공산당 인재를 흡수하고 대중 선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49] 당시 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후 1923년까지 상하이 등 각지에서 노동자 운동, 대중 조직, 선전 방면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50] 쑨원은 천두슈를 포함한 3명의 공산당원을 국민당 개진 위원(총 9명)으로 임명했고, 1922년 말 '러시아와 연합하고 공산당을 용인한다'(聯俄容共)는 정책을 확정하여 1923년 1월 1일 정식으로 개진을 선언했다.[51]

이후 소련은 국민당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조건으로 군벌과의 군사 연맹 탈피[52] 및 전국적 정당 건설을 요구했고[53], 천두슈도 코민테른의 의견에 따라 국민당 조직개편을 요구했다.[54] 쑨원은 1923년 10월 25일 후한

48) 김우현·문성묵, 「제3차 인터내셔널과 중국공산당관계연구: 1919-1927기간을 중심으로」, 『환태평양연구 3』, 1990, 2-4쪽.

49) 민두기, 『중국 초기 혁명운동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219-222쪽.

50) 中島嶺雄 / 윤영만 역, 『중국혁명사』, 세계, 1985, 83-88쪽. 쑨원은 1924년 7월 국민당 선전강습소를 설립하고 '공성(攻城)보다 공심(攻心)이 상책'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전동현, 앞의 책, 45-46쪽. 당시 쑨원은 노동자보다 농민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했는데, 그 이유는 농민이 중국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또 가장 고통받는 집단이기에 혁명적 역량으로 쉽게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같은 책, 55쪽.

51) 王奇生, 『党員、党權与党政 - 1924-1949年 中國國民党的組織形態』, 華文出版社, 2010a, 4-5쪽.

52) 1922년 봄부터 쑨원과 국민당은 안후이 군벌인 환계(皖係)와 둥베이 군벌인 봉계(奉系)군벌과 연합하여 당시 베이징 정부를 장악한 직계(直系) 군벌에 대항했고, 봉계 군벌이었던 장쭤린은 이 연합에 힘입어 제 2차 봉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楊力壯·徐學初, 「北洋軍閥的政爭与軍事混戰」, 陳廷湘 編, 『新時期的中國現代研究』, 四川大學出版社, 2008, 11쪽.

53) 소련은 개진 초기 국민당에 대한 경제적 차관 및 군사적 지원 등을 약속하였지만, 소련 내부에서 쑨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발생하자, 국민당에 더욱 급진적인 조직개편을 조건으로 차관 지원을 하게된다. 손승회, 「新刊資料를 통해 본 소련·코민테른과 中國國民黨 '改組' : 三民主義의 再解釋과 관련하여」, 『사림』 제17호, 2002, 101-104쪽.

54) 王奇生, 앞의 책, 7-8쪽.

www.kci.go.kr

민(胡漢民) 등 9명에게 '국민당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조직을 지시하여 국민당 조직개편을 추진했고,[55] 국민당은 1924년 1월 20일-30일 광저우에서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리다자오, 마오쩌둥, 취추바이 등 공산당원 10명을 국민당 중앙집행위원(전체 위원의 1/4 정도) 등으로 당선시켰다.[56] 쑨원은 볼셰비키를 모델[57]로 삼아 당치(黨治)를 확립한다.[58]

국공합작 시기 혁명 담론의 정치사회적 효과는 크게 제고되었다. 1915-18년까지 『신청년』에서 혁명, 자유, 과학, 평등, 민주 개념이 각각 유사한 빈도로 사용되었지만, 국공합작 시기 혁명 개념 사용이 급증하여 다른 개념들의 총합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했다.[59] 또 '혁명 대 반혁명'의 양자택일적 대항관계는 현실 정치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60], "'혁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곧 반혁명'"[61]이라는 구호가 확산되었다. 당시 국공

55) 같은 책, 8쪽.

56) 쑨원은 1923년 말 혁명을 위해서는 무력보다 '인민의 心力'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기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인부와 농민부를 설치함으로써 국민혁명 추진 또한 간과하지 않았다. 유용태, 「孫文의 國民會議 소집론 : 武力과 國民의 결합」, 『역사학보』 168집, 2000, 195-196쪽.

57)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레닌은 당의 존재와 지도에 의해서만 자연발생적 대중운동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지 않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될 수 있다고 여겼다.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책 제목은 니콜라이 체르니셉스키의 동명의 인기 소설 제목으로부터 유래했는데, 이 소설의 주 내용은 지식인 계급의 한 '새로운 인간'이 기존을 것을 부수고 사회적 이상향 건설을 위해 독재적 통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제임스 스콧 / 전상인 역, 『국가처럼 보기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르브르, 2010, 233쪽.

58) 보로딘은 국민당 조직교련원 등의 직책을 맡아 지역회의에서 전국대표회의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방식 체계 구축을 유도했다. 서동연, 「國民黨改組 時期의 보로딘(Mikhail M. Borodin) 연구 : 中國國民黨臨時中央執行委員會 顧問 시기(1923-1924)를 중심으로」, 『사총』 제57집, 2003.

59) 王奇生, 『革命与反革命-社會文化視野下的民國政治』,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b, 73-74쪽.

60) 니시무라 시게오·고쿠분 료세이 / 이용빈 역, 『중국의 당과 국가 - 정치체제의 궤적』, 한울아카데미, 2012, 55-56쪽.

www.kci.go.kr

간의 불일치는 '혁명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가' 및 혁명은 도대체 어떤 목표까지 진행돼야 하는가에 있었다.[62]

특히, 공산당은 대중 선전 및 동원을 주도했다. 당시 국민당 기관지의 선전능력은 공산당에 비해 상당히 뒤쳐졌는데, 심지어 국민당원들조차 공산당 기관지를 선호했다[63] 마오쩌둥은 1925년 국민당 선전부 주요 기관지의 편집인으로 활동했고, 1925년 하반기부터 1926년 상반기까지 국민당 선전부 대리 부장까지 역임했다.[64] 1925년 초 국민당은 광둥성 농촌 지역에서 공산당 영향 하의 농민협회에 의존하여 농민들의 희생을 강조했고, 그 결과 농촌에서 농민과 지주 간의 정치적 갈등 및 동원에 따른 불만을 억제할 수 있었다.[65]

그러나 1925년 3월 쑨원 사망 후 국민당 내에서 좌·우 분열이 발생했고, 장제스 중심의 국민당 우파는 대중적 혁명 노선을 방치하며 군사적 혁명 노선만을 강화했다. 이에 공산당은 「중앙통고 제 19호」에서 장제스의 국민당 우파를 비판하고 국민당 좌파를 두둔하는 등 대중에 대한 편파적 선전을 지시했다. 또 1925년 5월 5일 「통고 제 30호」에서 대중의 국민당 가입을 장려하고, 이들이 국민당원 교육·훈련을 장악함으로써 국민당 우파가 쑨원의 혁명의지를 위반하고 있음을 선전하도록 지시했다.[66]

장제스는 1926년 3월 군권을 또 5월 15일에는 당권까지 장악하였으며, 나아가 '공산당원의 국민당 요직 임명 금지' 결정한 후 정권까지 장악했다.

---

61) 王奇生, 앞의 책, 2010b, 67쪽.

62) 같은 책, 74쪽.

63) 같은 책, 88쪽.

64) 같은 책, 88쪽.

65) 『中共中央文件選集 1』, 360-361쪽.

66) 당시 공산당은 국민당원 가운데 누가 공산당원인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국민당은 공산당 명부가 없었기에 누가 공산당원인지 알 수 없었다. 이시카와 요시히로 / 손승회 역, 『중국근현대사 3 - 1925-194, 혁명과 내셔널리즘』, 삼천리, 2013, 32쪽.

www.kci.go.kr

당시 국민당의 당·정·군 요직을 동시에 겸직한 최고위급 인물은 13명 중 단 2명인 장제스와 예추창(叶楚伧) 뿐이었다. 장제스는 11개의 당직, 10개의 정직, 3개의 군직을 겸직하여 총 24개 요직을 겸직했고, 예추창은 14개의 당직, 2개의 정직, 1개의 군직을 겸직하여 총 17개 요직을 겸직했으며, 이외에 천리푸(14개), 쑨커(13개), 왕징웨이(12개) 등의 순서였다.[67]

공산당 창당 전후 사회주의자들은 개량을 비판하는 가운데 그에 반하는 인식들을 개조 개념에 투사했다.

첫째, 1919년 말 마오쩌둥은 개량을 낡은 것의 지속 문제로 인식했고[68], 19129년 3월 26일 펑황(彭璜)과 함께 쓴 「후난개조촉성회발기선언」에서는 후난성의 "근본개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난성 인민의 자치운동을 이끌었으며, 9월 30일에는 후난 사람들의 향, 현, 성 자치를 위해 향장, 현장, 성장에 대한 민주선거 실행을 주장했다.[69] 그러나 11월 말 이후부터 그는 "근본개조"를 위한 실천으로 공산당 조직화에 몰두한다. 둘째, 1920년 11월 7일 『공산당』 제1호 및 같은 날 『노동음(勞動音)』 발간사에서 개량은 조직 변화 의미에만 한정된 반면, 개조는 사회변혁과 인류 정신 변화 의미로 재현되었고, 또 혁명적 지식인은 사회개조가로 명명되었다.[70] 셋째, 차이허썬은 1921년 「마르크스 학설과 중국 무산계급」에서 개량파를 오직 의회정치에만 의존하는 문제적 세력으로 비유했다.[71] 넷째, 창당 이후 장궈타오는 당시 대다수 베이징 지식인들이 겉으로 사회개조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교육운동에 머물고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 획득을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비판하며[72], 공산당 지식인들은 반드시 노동자 및 빈민계급을

67) 王奇生, 앞의 책, 2010a, 202쪽.

68) 『毛澤東年譜 上』, 47쪽.

69) 같은 책, 55-65쪽.

70) 『中共党史參考資料 1』, 228쪽과 231쪽.

71) 같은 책, 248쪽.

www.kci.go.kr

위해 실천해야 하고, 학자화된 지식계를 무산계급의 혁명운동으로 이끌기 위해 선전과 조직 공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3]

그러나 코민테른이 국공합작을 주도한 이후 공산당 내에서는 개량 개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조 개념이 개량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국민당 주도의 '합법적 절차와 질서' 하의 점진적 변혁 노선으로 선회했다. 첫째, 공산당 중앙은 국민당 개진을 몇 개월 앞둔 시점인 1922년 6월 15일 인민 개량운동을 통해 봉건정치 체제를 민주혁명운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74] 둘째, 천두슈는 1922년 6월 30일 코민테른에 대한 보고에서 광둥 방면 노동자학교 설립 실적을 기계노조의 개조운동 성과라고 주장했고[75], 또 당 중앙 문건에 국공합작 초기 조직개량, 수리시설개량, 사법개량, 교육제도개량, 토지개량, 농민문제의 개량 등 개량 개념이 증가했다.[76] 셋째, 공산당은 민주주의적 통일과 국가건설 방법으로서 개량주의 노선을 더욱 강조했다.[77]

국공합작의 굴곡은 공산당이 개조를 정치사회적 실천 의미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당의 공산당 배척이 강화되자, 당 지도부는 개량주의 비판 및 급진적 운동을 지시한다. 국민당은 반제운동 참여를 꺼렸고, 여전히 노조를 탄압했으며, 공산당 세력과의 연합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천두슈와 마오쩌둥은 1924년 7월 21일 「중앙통고 15호」에서 지역 지부들이 비밀리에 '국민대외협회'를 조직하여 국민당 좌파와 연합하도록 지시했고, 국민당 우파의 개량주의를 반동적 행위로 규정했다.[78] 또 당 중앙은 1925

72) 『中共中央文件選集 1』, 12쪽.
73) 같은 책, 4쪽.
74) 같은 책, 33쪽.
75) 같은 책, 52쪽.
76) 같은 책, 260쪽.
77) 같은 책, 115-116쪽.
78) 같은 책, 284쪽.

www.kci.go.kr

년 국민당의 “반동적 혹은 개량적 행동”을 폭로함으로써 중간 및 급진 분자 흡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79] 나아가 1925년 10월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당 중앙은 국민당 우파의 영향을 받은 학생을 개량주의라고 규정하고 공청단의 학생운동 강화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1925년 10월 10일 당 중앙은 「농민에게 고하는 글」에서 국민당 군대와 관리들이 농민협회에 장애가 될 때 “농민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여 분투”[80]할 것을 역설했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국공합작을 유지하기 위해 개조를 다시 국민당 내 좌·우 분열을 통한 국민당 조직개편 문제로 축소했다.[81] 먼저, 1926년 초 당 중앙은 국공합작 유지를 위해 공식적으로는 개량주의 노선 지지를 결정하고, 실제로는 1926년 9월 20일 국민당 좌·우 분열을 활용한

광둥성 정부 개조 계획을 수립했다.[82] 다음으로, 장제스가 북벌에서 승리하며 중국 영토의 절반을 획득하자[83], 당 중앙은 한편으로 국민혁명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국민당 조직개편 전략을

79) 같은 책, 341쪽.

80) 같은 책, 515쪽.

81) 국공합작 시기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국공합작 유지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1926년 10월 공산당 중앙은 최소 18,526명의 당원을 확보한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다. 『中共中央文件選集 2』, 503쪽. 또. 1927년 4월 12일 장제스의 군사정변 직전까지 공산당 당원은 6만 명까지 증가했는데(국민당은 30만명), 그 중 노동자가 절반이었고 농민과 지식인은 20%였다. 이시카와, 앞의 책, 125쪽. 따라서 천두슈는 1926년 12월 13일 공산당 내 좌파의 반국민당 인식을 오히려 전통 사상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中共中央文件選集 2』, 562-563쪽.

82) 『中共中央文件選集 2』, 319쪽.

83) 실제 장제스의 북벌 성공은 대중이 ‘우리의 군대’라고 부르며 지지한 영향도 있었는데, 이는 공산당의 대중 선전 효과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광둥의 농민운동가들은 후난성과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약 40만의 회원을 거느린 농민협회를 조직했는데, 북벌 과정에서 농민협회 회원 수는 후난에서만 16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시카와, 앞의 책, 42쪽. 광둥·후난·후베이·광시성 등지의 중공 조직은 북벌 전쟁 시기 대중 동원에 조력했고 민중들도 운수·운반 조직을 결성하여 국민당의 전투를 도왔다. 郭生春·徐學初, 「北伐戰爭和大革命的失敗」. 陳延湘 編, 『新時期的中國現代研究』, 四川大學出版社, 2008, 82쪽.

www.kci.go.kr

세웠다.[84] 당시 공산당의 국민당 조직개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제스의 군권만 인정하고 당권과 정권을 좌파 체제에 두는 것, 둘째, 국민당 정파 간 권력 균형 유지를 위해 국민당 우파의 매판 행위를 대중에 폭로하는 것, 셋째, 국민당 좌파 지도자 왕징웨이 귀국을 위한 대중 운동을 전개하는 것, 넷째, 장제스 군권과 왕징웨이 당권 간의 균형을 위해 국민당 내부 공작을 전개하는 것 등이었다.

공산당의 국민당 좌·우 분열 정책은 결국 장제스의 군사 쿠데타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1927년 1월 1일 공산당은 국민당 좌파와 결탁하여 우한 국민정부를 설립했고, 3월에는 장제스가 맡고 있던 당 상무위 주석직을 폐지하고 군총사령관의 권한을 제한했으며[85], 나아가 1927년 3월 「전국인민에게 대한 선언」을 발표하여 장제스를 군사독재 및 신군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927년 4월 12일 장제스는 상하이에서 수많은 공산당원을 학살했고, 이는 공산당 내부에서 개조론자들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낳았다.

2. 국공합작 파국과 당내 개조를 둘러싼 각축

국공합작 파국 이후 공산당 혁명 노선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군사적 노선 형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마오쩌둥이 1927년 '8월 7일 한커우(漢口) 회의'(이후 8·7 회의)에서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라는 유명한 발언을 한 것이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1927년 8·7회의 시기 지도자들 간에 당내 개조를 둘러싼 각축 문제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1927년 8·7회의에서 마오쩌둥이 제기

84) 『中共中央文件選集 2』, 337-346쪽.

85) 이시카와, 앞의 책, 43-44쪽.

www.kci.go.kr

한 '총구 발언'은 네 가지 문제제기 중 하나에 불과한데, 나머지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 "둘째, 농민 문제이다. ... (나의 후난(湖南)농민운동 고찰) 보고서는 후난에 영향을 끼쳤지만 중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당내외 많은 대중은 혁명을 하려고 하나, 당의 지도는 도리어 혁명을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약간의 반혁명 혐의마저 있었다. ... 넷째, 조직문제이다. 이후부터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보고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혁명적이 아닌 것에서 혁명적인 것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86]

위 글에서 마오쩌둥은 '농민 문제' 지적을 통해 과거 당의 지도를 '반혁명'으로 몰아세웠지만, 중공중앙은 8월 3일 이미 「후난·후베이·광둥·장시(湘鄂粵贛) 4개 성 농민의 추수폭동에 관한 대강」에서 과거 농민운동 착오를 인정했고[87], 또 마오쩌둥의 비판은 실제로 1927년 7월 해임된 천두슈에 대한 재비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네 번째로 제기한 '조직 문제'는 다른 문제제기와 성격이 달랐다. 이는 8·7회의로 새롭게 등장한 취추바이(瞿秋白) 지도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당 내부의 자기개조 기제의 확립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처럼 마오쩌둥은 상급과 하급 간의 일방적 지배구조를 문제화함으로써 공산당의 혁명노선을 '위로부터 아래로 및 아래로부터 위로' 방식으로 재설정하려 했다.

당시 공산당은 각 지방에서 추수폭동을 일으키는 등 혁명의 현실적 실천에 직면했기에, 당 지도부를 향한 개조 요구는 지역 지도자에 의해 더욱 강한 논조로 제기되었다. 이는 1927년 10월 8일 「후난성 추수봉기에 관한

86) 『모택동 선집 I』, 55-56쪽.
87) 『毛澤東年譜 上』, 205쪽.

www.kci.go.kr

펑궁다(彭公達) 동지의 경과보고」[88]에서 잘 드러난다. 당 중앙은 기존의 후난성위원회가 중앙의 지주 토지 몰수 방침에 소극적으로 반응하자 펑궁다를 새 당서기로 또 마오쩌둥을 중앙특파원으로 임명하여 후난성위의 조직개편을 지시했다. 새롭게 구성된 후난성위 9명의 새 위원(3인은 공농 출신, 3인은 공농 출신의 지도자, 3인은 투쟁을 직접 전개할 수 있는 인사)들은 추수폭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먼저, 토지 몰수 방법과 관련하여, 마오쩌둥은 혁명위원회(당)이 방법을 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또 몰수 당한 지주들 특히 노쇠한 지주들에게 반드시 적당한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리룽(易礼容)은 정치적 몰수를 취해야만 농촌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샤밍한(夏明翰)은 농민협회 스스로 몰수 방법을 선포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른 위원들은 마오쩌둥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음으로, 폭동문제와 관련하여, 마오쩌둥과 이리룽은 농민들의 역량에만 의존할 때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군사적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당이 과거 군사 방면을 너무 경시했기에 실패했고, 따라서 60%의 정력은 군사적 행동에 두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샤밍한의 경우 농민들은 용기가 부족하여 군사적 역량의 도움없이는 자신의 정부를 세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펑궁다는 위와 같은 성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을 종합하며, 마오쩌둥을 포함한 위원 모두가 "혁명적 평화주의"에 빠져 혁명 발생 이후에 대해 공포를 느꼈고, 이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또 군사적으로 대중을 통제하려 할뿐,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고 또 노동자·농민 대중 속에 자체의 무장세력을 건설하지 않으려 한다"[89]고 평했다.

실제로 폭동은 크게 실패했는데, 이는 군사적 승리가 이루어진 곳에서

88) 『井岡山革命根据地 上冊』, 27-42쪽.

89) 같은 책, 30쪽.

www.kci.go.kr

도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 토지 몰수를 선언하고 농민협회를 회복했지만, 농민 대중이 호응을 하지 않았다. 2. 토호열신(土豪劣紳)을 죽여 지주의 토지를 평분해야 함에도, 해당 지역 지도자가 집행하는데 주저했다. 3. 농민이 혁명을 원해도 지도자가 결심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펑궁다의 비평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1. 당 스스로 농민의 토지혁명 운동 방식이 아니라 군사행동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농민들은 이번 봉기에 흥미를 느끼지도 않았다. 2. 당의 지도기관이 여전히 소자산계급으로 이루어졌기에 농민 속으로 들어가 올바른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다.

펑궁다는 직접적으로 중앙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의 당의 지도가 무력해지는 것은 공산당의 조직적 결점 및 사상적 결점 때문이라고 보았다.

> "1. 조직 상의 결점: 우리 당의 ... 당원은 당 공작 중 오직 개인적 감정만 있고 계급적 감정이 없다. ... 따라서 투쟁에 임했을 때 당원은 당과 계급의 입장에서 벗어나 당이 결정한 전략과 전술을 버리고 무의식적으로 반혁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 각급 당부를 단호히 개편하여 진정한 무산계급의 정당을 건립해야 한다.
> 2. 사상 상의 결점: 우리 당은 조직적 측면에서 무산계급의 정당이 아니라 여전히 소자산계급의 혁명집단이다. ... 당의 사상이 무산계급의 사상이 아니기에, 주요 전략과 전술은 정확한 결정일 수 없다."[90]

따라서 펑궁다는 "중국 혁명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고,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당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고 매우 정확한 혁명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당

90) 같은 책, 41-42쪽.

www.kci.go.kr

을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毁党造党)" 자기개조를 제기했다.

> "근본적으로 (당)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개조해야 하며, 투쟁을 실천할 수 있는 무산계급 정당을 조성해야 한다."[91]

상술한 바와 같이, 일부 지도자들이 당 중앙 스스로 조직적·사상적 측면의 자기개조를 전개할 필요성을 제기하자, 당 중앙은 위계적 조직화를 강화하며 이러한 방식만이 올바른 개조라고 규정했다.

먼저, 당 중앙은 추수봉기 실패의 원인이 지역 지도자들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1927년 11월 9일 회의에서 펑궁다와 마오쩌둥을 해임했고, 당 중심의 명령 구조 확립을 주요 '개조 임무'로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볼셰비키화를 강조했다.[92] 다음으로, 당 중앙은 1928년 1월 30일 각급 당부에 보낸 「중앙의 제 32호 통고」에서, 수차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각지의 조직 개조 상황이 전혀 보고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며, 이를 '중국 전통의 악습'으로 규정하고 당의 볼셰비키화를 통한 개조를 재차 요구했다.[93]

> "볼셰비키 당의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를 견지하는 조직이 없다면 그 정책은 결코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특히 중국의 소농생산 사회성 때문에, (중국인은) 조직 운영에 능하지 못하다. 중국인의 일반 습성인 산만한 경향은 공산당 내부에 충만하다. ... (따라서) 당 성분의 개조, 당원

91) 같은 책, 42쪽.

92) 『中共中央文件選集 3』, 469-471쪽. 이 문건에서 당 중앙은 또 다른 개조 임무로 노동자와 농민 간부 충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당 중앙은 도시 중심의 혁명 노선을 취하고 있었기에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충원에도 차등을 두었다. 예를 들어, 1928년 1월 초 후난성위에 보낸 지시에서 대도시 점령을 위해 노동자를 중요한 입당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빈농을 부차적 입당 대상으로 두었다(中共中央文件選集 4: 50-55).

93) 『中共中央文件選集 4』, 76-84쪽.

www.kci.go.kr

> 사상의 개조, 지도기관의 개조, 일체 공작방법의 개조, 당과 대중 조직 관계의 개조가 필요하다."[94]

마지막으로, 당 중앙은 엄격한 명령이행을 감시하는 공작 강화를 지시하며, 당내 민주주의는 결코 하급 간부가 상급 간부를 공격하거나 상급기관에 무권위(无權威)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95]

당 지도부와 지역 지도자들 간의 상이한 개조 갈등은 점차 담론 갈등 차원에 머물지 않고 혁명 노선 및 군사력 운용을 둘러싼 실질적인 권력 각축으로 발전되었다. 예를 들어, 당 중앙은 도시 중심의 혁명 노선을 견지하며 지역 지도자들의 복종을 강요했고, 지역 지도자들은 당 중앙이 농촌 현실에 너무 무지하다고 비판하며 독자적 군사 활동을 정당화했다.

실제 지역 지도자들은 당 중앙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자적 활동을 취했기 때문에 세력 확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은 1927년 말 장시성과 후난성의 접경에 위치한 징강산에 정착한 후 1928년 5월 주더 군대와 결합하여 홍4군을 설립했고, 1928년 7월 장시성 루이진(瑞金)에 소비에트를 건립하기도 했다. 또 서북 지역에서도 류즈단(劉志丹)과 가오강 등이 소비에트를 건립했다. 당시 당 중앙의 도시 혁명 노선은 농촌에서의 세력 확장 보다 대규모 점령을 추구했고, 또 농촌에서의 봉기 또한 도시 노동자의 지도를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중앙과 지역 지도자들 간의 연락은 수개월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었을 정도였고,[96] 이러한 조건에서 지역 지도자들의 독자적인 게릴라 활동은 매우 성

94) 같은 책, 76-77쪽.

95) 같은 책, 80-82쪽. 중앙의 당 개조 지시는 이 시기 많은 문건들에서 발견되는데, 1928년 3월 6일 「중앙의 제 36호 통고 부본」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문건에서 당 중앙은 혁명 과정의 매우 중요한 임무로서 당 개조를 강조하며, 이는 대중의 적극적 동원과 당 중앙의 위계적 지도력 강화를 의미했고, 이를 "우리 당의 전국(강조는 원문) 각지 당부의 임무"라고 규정했다. 같은 책, 147쪽.

www.kci.go.kr

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당 중앙의 명령 이행 요구는 종종 지역 홍군에게 재앙스런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97]

당시 홍4군 이외에도 각 지역의 독자적 활동은 비교적 광범위한 현상이었다. 1928년 10월 5일 닝강(宁岡)현 부윈산(步云山)에서 개최된 「후난성(湘)과 장시성(贛)경계 각 현의 당 제2차 대표대회 결의안」에서는 각 현 당지부들의 독립국화 문제가 "특별히 두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마오쩌둥 이외에 융신현 위원회의 류전(劉眞) 등이 당의 집단지도에 반하는 대표적 사례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의 순시 및 지도 방식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8] 그 결과 「이후 당의 개조와 건설」을 위한 12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99] 그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은 지부에서부터 철저히 개조한다. 2. 특별위원회 및 현 위원회 모두 반드시 4명 이상의 순시원을 두고, 수시로 하급 공작을 지도하여 각급 당부 개조를 돕는다. 4. 각급 당 기관은 반드시 조직을 완비하여, 개인적 지도를 탈피하여 모든 권력을 상임위원회로 집중시킨다. 5. 당 개조 과정은 완전히 무산계급의 관점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자유 독립·낭만 분자를 단호히 (반대하고) "독립국"화 경향을 엄밀히 방지한다. 9. 노동자 지도 역량을 제고하고, 농민당 경향을 엄격히 방지한다. 12. 볼셰비키의 "철의 기율"을 당의 주요 정신으로 삼아야만 비로소 무산계급의 지도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당 중앙의 중요 공작을 개조하고 건설할 수 있다.

이에 지역 지도자들은 단순히 지역 내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지

96) 같은 책, 239쪽.

97) Esherick, Joseph W., Ten Theses on the Chinese Revolution. *Modern China*, Vol, 21. No. 1, Symposium : Rethinking the Chinese Revolution, 1995, 61-62쪽.

98) 『井岡山革命根据地 上冊』, 187-188쪽.

99) 같은 책, 188-190쪽.

www.kci.go.kr

속적으로 당 중앙에 비판하고 개조를 요구했다.

1928년 11월 11일 당 중앙은 지역 지도자들의 개조 요구, 즉 상하 조직 간의 소통적 관계구조 요구를 '극단적 민주화'라고 규정하고, 중앙이 지역을 개조하는 것을 '올바른 민주화'로 못 박았다.[100] 1929년 6월 2중전회에서도 중앙은 하급의 개조 요구를 극단적 평등과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상급이 하급을 개조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화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101]

당 중앙은 기층 조직과 간부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순시원 제도를 만들어 각 지역 당부·홍군을 감찰하고자 했다.[102] 1928년 7월-8월 초 「후난성위원회 중앙 순시원이 '마오쩌둥·주더 군(軍)'에 보내는 서신」에서, 중앙 순시원은 홍4군이 당 중앙의 개조 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중앙 순시원은 홍4군 중 다수가 토비와 비밀결사 출신이라는 문제, 나아가 당의 지도를 받지 않는 '홍4군 사유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개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103]

마오쩌둥은 이러한 상급의 비판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영향력 및 홍군 확대를 위해 중앙의 홍4군 개조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홍군 확대를 추구했다. 1928년 11월 경 마오쩌둥은 홍군의 대중선전과 동원역량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차 고립되고 있다

100) 『中共中央文件選集 4』, 704-705쪽.

101) 『中共中央文件選集 5』, 217-227쪽.

102) 예를 들어, 1928년 7월 2일 「중앙에 대한 순시원의 보고 - 후난 정황의 일단」의 경우 약 500자 정도로 간략하게 후난성의 노동자-농민 투쟁 진전, 주더와 마오쩌둥 부대의 현재 공략 대상, 이외의 공작 인원 활동, 신규 가입 인원수, 각 현(縣) 조직 상황 등을 보고하였다(井岡山革命根据地, 上冊: 145). 순시원의 보고는 수시로 이루어졌고 때로는 몇 페이지에 이르렀다(井岡山革命根据地, 上冊: 171). 이들 순시원들은 주로 감찰 지역들을 방문했지만 이외에 해당 지역에 편지를 보내 중앙 정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103) 『井岡山革命根据地 上冊』, 175쪽.

www.kci.go.kr

고 생각했다.[104] 따라서, 1929년 1월 경 홍4군은 「녹림형제에게 고하는 서신」을 발표했는데, "당신들과 우리는 모두 토지가 없고 일도 없으며 의복이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며 거주할 곳이 없는 가난한 친구"[105]라고 적었다. 또 자신들이 '녹림형제'들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당신들에게는 더 이상 출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홍군과 공산당의 지휘 수용을 권유했으며, 서신의 말미에는 "형제들아 빨리 오시오! 우리 홍군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적었다.[106]

이처럼 중앙(상급기관 포함)과 홍4군 간의 개조 갈등이 긴장 상태를 유지되는 가운데, 당 중앙은 1929년 2월 7일 「룬즈(潤之: 마오쩌둥), 위제(玉階: 주더), 그리고 후난·장시성 경계 특위에 보내는 중앙의 서신」을 홍4군에 보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홍4군 해체 및 마오쩌둥과 주더의 중앙 복귀를 명령하는 것이었다. 당시 중앙과 후난성위원회는 홍4군을 해체하여 중앙 통제 하의 '지역 초월적 부대'로 활용하고자 했다(Aviril, 2006: 266).[107]

> "우리 공작은 반드시 현재 당의 중심 임무와 공작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 또 반드시 일상생활 투쟁과 대중 조직이 서로 연계되어야만 한다. ... 대중 투쟁의 발전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서만 발전될 수 있다. ... 따라서 너희 홍군 무장병력은 서로 연락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부대로 분산 편제하고 후난·장시 변경 각 향촌으로 산개된 채 들어가 토지혁명을 깊이 진행하라. ... (이는 결코) 중앙이 너희들에게 패배주의 정신을 갖게 함이 아니다. ... (또) 중앙은 주더-마오쩌둥 두 동지가 부대를 떠나 중앙으로 와야

104) S. 슈람 / 김동식 역, 『毛澤東』, 두레, 1979, 142-143쪽.

105) 『井岡山革命根据地 上冊』, 216쪽.

106) 같은 책, 217-218쪽.

107) Averill, Stephen. C., *Revolution in the Highland - China's Jinggangshan Base Area*, Lowman & Littlefield Publisher, 2006, 266쪽.

www.kci.go.kr

> 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했다. 두 동지가 부대에서 수년간 공작을 했기에 떠나오는 것을 원치 않겠지만, 이는 오직 중앙이 객관적 고찰과 주관적 필요에 따라 두 동지가 현재 부대를 떠날 필요가 있음을 깊이 믿는 바이다. ... 의연하게 부대를 떠나 속히 중앙으로 오라. 부대의 분산 편제와 두 동지의 부대 이탈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 군부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입안하여 보내겠다."[108]

이처럼 중앙과 지역 각급 상부의 장기간에 걸친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직접적인 거절·비판·반박 등으로 대응했다. 마오쩌둥은 중앙이 보낸 위 서신을 약 2개월 후인 4월 3일에야 비로소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중앙의 홍4군 해체 요구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태도라고 평가하며 "대중은 광대하고 또 혁명적이지만, 당 (중앙)은 오히려 팔짱낀 채 지도하지 않는다."[109]며 당 중앙을 비판했다. 나아가 당 중앙의 지시를 다음의 이유들을 들어 반박했다. 첫째, 중앙의 대도시 혁명 전략도 중요하지만, 농촌투쟁·소비에트 건립·홍군의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중앙이 제시한 농촌 공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홍4군의 해산·산개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 셋째, 홍4군의 활동은 이미 지방성을 초월한 집단이기에 '반드시 중앙의 직접적인 지휘'만 받을 수 있다. 즉, 이는 실질적으로 잘 연락이 닿지 않는 중앙뿐만 아니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지역 당위의 지휘조차 거부하는 것이었다.[110] 그리고 마오쩌둥은 답신의 말미에서 '이미 도착했어야

108) 『井岡山革命根据地 上冊』, 239-241쪽.

10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毛澤東文集 1』, 人民出版社, 1993, 55쪽.

110) 당시 홍4군은 지방의 상급 당부와도 갈등 관계에 있었다. 후난-장시성 경계 특별위원회는 1929년 5월 20일 중앙에 대한 보고에서, 현재 지역 당내 분쟁의 주요 원인은 일부 지역 지도자들의 농민의식 경향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그 해결 방법으로 "상급의 권위 있는 기관이 요원을 파견하여 이 곳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井岡山革命根据地 上冊』, 316쪽. 이는 당 중앙이 앞서 5월 15일 「중앙의 제 37호 통고 - 국제 2월 8일 훈령에 대한 중앙의 결의」를 통해 상급 조직의 순시 공작 보완과 하급

www.kci.go.kr

할 각종 신문과 간행물들이나 잘 챙겨서 보내달라'고 적었다.[111]

장기간 지속된 당 중앙과 홍4군 간의 개조 갈등은 코민테른의 개입으로 종식된다. 1929년 6월 7일 코민테른은 중공중앙에 서신을 보내, 당 중앙의 도시 혁명노선을 지지하고 홍4군 등의 농촌 혁명 노선을 비판했다.[112] 당시 코민테른은 마오쩌둥의 농촌 중심의 유격전술에 꽤 큰 호감을 보였지만, 코민테른의 대다수 지도자들은 여전히 도시 중심의 혁명 노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상태였다.[113] 그 결과 1929년 6월 22일 「홍군 제4군 제 7차 당 대표대회」에서 마오쩌둥은 중앙이 지정한 당연위원으로서 천이, 린뱌오, 4명의 사병 대표 등과 함께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위위원으로 재선출되지만, 서기직 선거에서 천이에 밀려 낙선했다.

어쨌든 당 중앙은 오랜 개조 갈등에서 승리했고, 홍4군 개조를 선전하기도 했다. 1929년 6월 말 당 중앙 기관지 『홍치(紅旗)』에 실린 「한 홍군 병사가 보낸 편지」에 따르면, 홍4군 소속 사병이라고 밝힌 작자는 '자신들은 공산당의 군대이고, 대중으로부터 탄생하였으며, 민중을 위해 봉사하고, 노동자-농민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나아가 당의 정치적 영향이 대중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서술했다.[114]

이처럼 중앙과 지역간의 개조 갈등이 마무리된 이후, 중앙은 지역 군사권에 대한 통합적 지도권 확립을 선언할 수 있었다.[115] 그러나 지역에 대한

기관에 대한 지도 강화가 결정에 부응한 것이다. 『中共中央文件選集 5』, 142쪽.

111) 『毛澤東文集 1』, 62쪽.

112) S. 슈람, 앞의 책, 146쪽.

113) 楊奎松, 『毛澤東与莫斯科的恩恩怨怨』, 江西人民出版社, 1999, 14쪽.

114) 『井岡山革命根据地 上冊』, 326-327쪽.

115) 1930년 4월 3일 「중앙의 제103호 통지 - 전국 홍군지휘 문제에 관하여」에서 당 중앙은 과거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각 홍군에 대한 지휘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기에 이후 각 홍군의 모든 지휘권을 중앙군사위원회로 통일한다고 선언했다. 『中共中央文件選集 6』, 56쪽.

www.kci.go.kr

이해와 군사 지도 경험이 부족했던 당 지도부가 군권을 장악함에 따라 다시 군사적 모험주의가 도래했고, 이는 공산당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았다.

예를 들어, 1930년 4월 3일 당 중앙은 지역 게릴라 노선을 철폐하고 대도시 공세를 결의했다.[116] 특히 리리싼은 1930년 6월 초 「새로운 혁명고조와 한 개 성 혹은 여러 개 성에서의 우선 승리」 안을 통과시켰다.[117] 1930년 7월 말 중앙의 지시에 따라 홍군 제3군단 및 노동자와 농민 등 무장병력 약 20만은 국민당 대도시 창사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지만, 국민당의 반격으로 며칠 만에 큰 손실을 입고 퇴각했다. 홍군이 중국 대도시를 함락시킨 사건은 세계적 뉴스거리로 회자되었기에, 장제스는 이후 4년 동안 수백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공산당 근거지를 토벌했다. 결국 1934년 말 공산당은 당과 군대를 이끌고 대탈출(또는 대장정)을 감행했고, 이는 실제로 공산당을 지지했던 대중들을 국민당의 끔찍한 보복에 내버리는 행위였다.[118] 이 때문에 공산당 지도자들은 1935년 쭌의회의에서 '아래로부터의 개조'를 통해 당시 당 총책임자였던 보구와 코민테른이 파견한 오토브라운을 끌어내렸고,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는 이러한 정치적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1935년 이후 당 주도의 '자기개조'를 도입했고 이러한 기제를 지역 기층까지 확장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119]

IV. 결론

20세기 초 등장한 중국 개조론은 '혁명' 담론에 사로잡힌 지식인들이 추

116) 같은 책, 58쪽.

117) 같은 책, 98쪽.

118) 모리스 마이스너 / 김수영 역,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이산, 2004, 64-67쪽.

119) 이는 김판수, 앞의 논문, 20-27쪽을 참조하라.

www.kci.go.kr

상적 세계가 아닌 구체적 세계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이끌었고, 또 외재적 대상이 아닌 내재적 대상을 우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과 전략을 취하도록 끊임없이 추동했다. 1919년 5·4운동 이후 개조 개념이 점차 사회주의적 실천과 관련된 의미로 인식됨에 따라, 공산당은 국공합작 과정에서 장제스의 독재와 대중정치 억압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해 스스로를 개조 세력으로 부각시켰다. 나아가 혁명 시기 공산당 지도자들은 위계적 조직화 및 대중동원 방식이 위기를 가중시킬 때 개조론을 통해 대안적인 조직화 및 대중정치를 탐색·실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공합작 파국 이후 공산당 일부 지도자들은 당 중앙의 위계적 조직화 및 엘리트적 사상 견지 등을 '반혁명적'이라고 지적하며, 당 지도부가 아래로부터의 개조를 수용해야만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개조론은 공산당이 '낡은 세력'으로 퇴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명 세력'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 결과 중국 개조론은 공산당이 일본 천황제 및 소련 당치 모델과 구별되는 중국특색의 정치사회적 관계 만들기를 추동했고, 또 '낡은 지배구조의 지속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정당화하는 실천적 담론으로 발전했다.

약 100년 전 중국에서 개조 개념이 정치사회적 담론으로 구성될 즈음, 천두슈는 청년들이 노예적, 보수적, 퇴보적, 쇄국적, 형식적, 공상적이기를 거부하고 자주적, 진보적, 진취적, 국제적, 실리적, 과학적이기를 요청했고, 이를 "청년 사상 개조"로 규정했다. 이는 중국의 초기 개조론이 사회진화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5·4 운동 이후 중국의 개조론은 일부 지식인들이 대중을 정치적 동반자로 상상한 조건에서, 낡은 위계적 지배구조를 고쳐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정치사회적 관계 만들기 의미로 굳어져갔다. 특히, 코민테른의 중국 혁명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지원은 국공양당의 위계적 조직화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지만, 그 방식을 둘러싼 문제는 공산당 개조론의 새로운 분기와 각축을 유발했다.

먼저, 공산당은 국공합작 시기 국민당의 권력독점과 개량주의 비판을

www.kci.go.kr

통해 스스로를 개조 세력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이 때 개조의 의미는 주로 국민당의 소수파를 도와 권력 장악을 돕는 것이었지만, 그 이외에 대중의 정치 참여 및 국민당 체제 전복까지 선동하는 것까지 포함했다.

다음으로, 국공합작 파국 이후 개조론은 공산당 내부의 위계적 조직화 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축으로 작용했다. 당 지도부는 '위로부터의 개조'를 통해 당의 볼셰비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지도자는 '아래로부터의 개조'의 필요성 제기로 맞받았는데, 이는 당의 위계적 조직화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 내 자기개조 기제의 확립을 통해서만 중공이 기층 현실을 아우를 수 있는 혁명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1929년 코민테른의 개입으로 당 내부의 개조 각축이 마무리되고 위로부터의 개조 노선이 승리했다.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중공은 내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숙반운동 전개, 중앙 감찰 조직 강화, 국가정치보위국 설립 등 위로부터의 폭력적 개조를 전개했고 외적으로 도시 중심의 혁명 노선을 취함으로써 국민당의 대규모 토벌을 자극하는 등 당을 궤멸 상황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결국 1934년 말 공산당의 대탈출(대장정)의 원인이 되었다. 1935년 1월 쭌의회의 이후 마오쩌둥과 다른 지도자들은 1929년 이전 아래로부터의 개조론에 근거하여 지도부 교체를 정당화했다. 이는 새로운 지도부가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독특한 조직화 방식을 중앙에서부터 기층까지 도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혁명 시기 공산당의 개조 실천은 조직의 효율성(efficiency)보다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38년 마오쩌둥은 권력 장악 후 위계적 조직화를 강조하면서도 기층으로 갈수록 자율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혁명 시기 공산당의 각급 당정 조직들은 상급 명령을 기층 현실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하는 가운데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만, 이는 기층 조직이 현실에 무지한 상급보다 대중의 필요와 요구에 더 적극적으

www.kci.go.kr

로 반응하는 자율적이면서 혁명적인 조직으로 변신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주제어 : 5·4운동, 사회진화론, 개조, 사회개조론, 중국공산당, 국공합작, 마오쩌둥

(논문투고 : 2015.12.11 / 논문심사완료 : 2015.12.21 / 논문게재 확정일 : 2015.12.23)

www.kci.go.kr

참고문헌

井岡山革命根据地党史資料征集編研協作小組 編, 『井岡山革命根据地, 上冊』, 吉安, 中共党史出版社, 198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毛澤東年譜 1893-1949 上卷』, 中央文獻出版社, 199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毛澤東文集 1』, 人民出版社, 1993.

中共中央党校党史教研室選 編, 『中共党史參考資料 1』, 人民出版社, 1979.

中央檔案館 編, 『中共中央文件選集 1-6』,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89.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문헌편집위원회 편 / 이희옥 역, 『모택동 선집 I』, 전인, 1989.

김우현·문성묵, 「제3차 인터내셔널과 중국공산당관계연구: 1919-1927기간을 중심으로」, 『환태평양연구』 3, 1990.

김종윤, 「淸末 國民性改造論에 대한 考察」, 『중국학논총』 제 28집, 2009.

김판수, 「중국공산당의 자기개조와 당-대중 개조체계의 형성(1935-1945)」, 『중소연구』 제38권 제4호, 2015.

中島嶺雄 / 윤영만 역, 『중국혁명사』, 세계, 1985.

니시무라 시게오·고쿠분 료세이 / 이용빈 역, 『중국의 당과 국가 - 정치체제의 궤적』, 한울아카데미, 2012.

모리스 마이스너 / 권영빈 역, 『이대조 - 중국사회주의의 기원』, 지식산업사, 1992.

모리스 마이스너 / 김수영 역,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이산, 2004.

민두기, 『중국 초기 혁명운동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민홍기, 「청말 진화론 담론과 중국기독교 - 인류 기원에 대한 담론을 중

www.kci.go.kr

심으로」,『중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2015.
박홍규·조계원,『옌푸(嚴復)와 번역의 정치 :『천연론』에 담긴 '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4호, 2012.
백영서,『중국 현대 대학 문화연구』, 일조각, 1994.
肖效欽·李良志 / 최윤수 역,『중국혁명사 1』, 거름, 1990.
서동연, 「國民黨改組 時期의 보로딘(Mikhail M. Borodin) 연구 : 中國國民黨臨時中央執行委員會 顧問 시기(1923-1924)를 중심으로」,『사총』제57집, 2003.
S. 슈람 / 김동식 역, 『毛澤東』, 두레, 1979.
손승회, 「新刊資料를 통해 본 소련·코민테른과 中國國民黨 '改組' : 三民主義의 再解釋과 관련하여」, 사림』제17호, 2002.
제임스 스콧 / 전상인 역,『국가처럼 보기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르브르, 2010.
유용태, 「孫文의 國民會議 소집론 : 武力과 國民의 결합」,『역사학보』168집, 2000.
윤상인,「국민 속의『마음』: 국민국가에 있어 정전이란 무엇인가」, 윤상인·허우성 외,『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2006.
이시카와 요시히로 / 손승회 역,『중국근현대사 3 - 1925-194, 혁명과 내셔널리즘』, 삼천리, 2013.
이택후 / 이형종 역,『중국현대사상사의 굴절』, 지식산업사, 1992.
전동현,『두 중국의 기원』, 서해문집, 2005.
전인갑,「근·현대 중국의 대중매체와 '국가건설'」,『역사학보』204, 2009.
차태근,「량치차오와 중국 국민성 담론: 국민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현대문학, 제45호, 2008.
첸리췬,『망각을 거부하라 - 1957년학 연구 기록』, 그린비, 2012.

www.kci.go.kr

鈴木梅四郎,『日本改造の意義及其綱領』, 實生活社出版部, 1999.

鮑霽, 「論魯迅改造國民性思想的發展」, 社會科學輯刊』, 1981(5).

陳獨秀,「敬告青年」, 張宝明·王忠江 編,『回眸『新青年』-社會思想卷』, 河南文藝出版社, 1997(1915).

_____.「今日中國之政治問題」, 張宝明·王忠江 編,『回眸『新青年』-社會思想卷』, 河南文藝出版社, 1997(1917).

陳高原,「辛亥革命与改造國民性思潮」,『開放時代』, 1988(7).

付啓元·盧立菊,「試述南京解放初期的社會改造」,『江南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4(4).

郭生春·徐學初,「北伐戰爭和大革命的失敗」. 陳延湘 編,『新時期的中國現代研究』, 四川大學出版社, 2008.

韓曉莉,「抗日根据地的戲劇運動与社會改造」,『抗日戰爭研究』, 2011(3).

何文平,「知識冲突還是政治反抗 - 广東地方精英對民初革命党人社會改造的抵制」,『社會科學研究』, 2009(4).

胡繩, 『胡繩論"從五四運動到人民共和國成立"』, 社會科學溫馨出版社, 2001.

胡适,「非个人主義的新生活」,『胡适文集 2』, 北京大學出版社, 1998(1920).

黃正林,「1937-1945年陝甘宁邊區的鄉村社會改造」,『抗日戰爭研究』, 2006(2).

康景星,「貴陽市的接管与社會改造綜述」,『貴州文史叢刊』, 1996(1).

柯平凭,「再談改造國民性与建設公民社會」, 武陵學刊』, 2015(1).

李大釗,「青年与老人」, 張宝明·王忠江 編,『回眸 ≪新青年≫-社會思想卷』, 河南文藝出版社, 1997(1917).

_____,「"少年中國"的"少年運動"」,『李大釗全集 3』, 人民出版社, 2006(1919).

www.kci.go.kr

_____, 「青年与農村」, 顧明遠 編,『中國教育大系』(修訂版) - 20世紀中國教育(一), 湖北教育出版社, 2002(1919).

李小尉,「論建國初期儿童救濟組織的社會改造」,『求索』, 2011(8).

劉集林,「"造社會"与社會改造－－以五四前后傅斯年的思想爲中心」, 『广東社會科學』, 2010(6).

羅志田,「整体改造和点滴改革:"問題与主義"之爭再認識之二」,『歷史研究』, 2005(5).

_____,「從新文化運動到北伐的文化与政治」,『社會科學研究』, 2006年, 第4期.

梁啓超,「新民說」,『梁啓超全集 3』, 北京出版社, 1999(1902).

劉叔雅, 「歐洲戰爭与青年之覺悟」, 張宝明·王忠江 編,『回眸『新青年』-社會思想卷』, 河南文藝出版社, 1997(1913).

默水,「思想的分量-魯迅"立人"与"國民性改造"思想散論」,『北京科技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7(3).

楊麗萍,「論新中國成立之初政府對社會异質性的消解 - 透過上海游民改造的分析」,『江蘇社會科學』, 2009(4).

楊志霞,「嚴夏三民思想述評」,『金陵科技學院學報』, 2008年03期, 2008.

楊奎松,『毛澤東与莫斯科的恩恩怨怨』, 江西人民出版社, 1999.

君左,「社會改造与新思潮」,『改造』. 1920年 3月. 第3卷 第1号, 1920.

楊力壯·徐學初,「北洋軍閥的政爭与軍事混戰」, 陳延湘 編,『新時期的中國現代研究』, 四川大學出版社, 2008.

王奇生,『党員、党權与党政 - 1924-1949年 中國國民党的組織形態』, 華文出版社, 2010a.

_____, 『革命与反革命-社會文化視野下的民國政治』,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b.

朱希祖,「敬告新的青年」, 張宝明·王忠江 編,『回眸『新青年』-社會思想卷』,

www.kci.go.kr

河南文藝出版社, 1997(1920).
王善中,「建國初期的社會改造」,『歷史教學月刊』, 1997(8).
王先俊,「論"五四"后的社會改造思潮」,『安徽師范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9(2).
王學鈞,「改造國民性-近現代文學的內在聯系」,『蘇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7(2).
朱蓉蓉,「論陕甘宁邊區的二流子改造運動」,『社會科學戰線』, 2008(12).
鄒小站,「政治改造与社會改造:民初的思想爭論」,『史林』, 2015(1).

Averill, Stephen. C., *Revolution in the Highland - China's Jing-gangshan Base Area*, Lowman & Littlefield Publisher, 2006.
Esherick, Joseph W., Ten Theses on the Chinese Revolution. *Modern China*, Vol, 21. No. 1, Symposium : Rethinking the Chinese Revolution, 1995.
Ip, Hung-Yok, Politics and Individuality in Communist Revolutionary Culture. *Modern China*, 1997.

www.kci.go.kr

中国改造论与对旧统治结构持续的抵抗 (1915−1929): 以共产党内部的改造竞逐为中心

金 判 洙

本稿爲了弥補對中國改造輪研究的空白，關于1920年代初中國改造論爲何成爲共産党的革命路線，和共産党遭到最危急時領導人之間里發生分歧，卽怎么根据改造論對于組織化方式及群衆政治戰略等的問題展開競逐或妥協進行分析。

約100年前出現的中國改造論只不過是像日本一樣以知識分子爲中心的話語而已。但以1919年5.4運動爲發端，知識分子開始把民衆当作重要的政治社會性力量。因此，除了在中國樹立了与日本改造論相反的社會變革性的改造論，還当時正在广爲擴散的社會主義更加親密。尤其，共産党在國共合作過程当中通過對蔣介石和國民党的專政行爲的批判，能够把自己当成爲改造勢力。而且，合作破裂后一些共産党領導人對党的層次結构性的組織化方式和知識分子中心的思想批評爲反革命，强烈地要求改造党中央。

歷史上共産党的改造提高了在組織的效果性(effectiveness)比效率性(efficiency)方面帶來了重要的影響。比如，1938年毛澤東掌握權力后，雖然强調了層次結构性的組織化，但是還指示對基層干部應該提高自律性。因此，革命時期共産党的各級党政組織接到上級命令后根据現實的條件不斷學習和調整，結果，基層党政組織慢慢地成長爲對群衆要求和需求更加積极反應的革命組織。

關鍵詞 : 五四運動，社會進化論，改造，社會改造倫，中國共産党，國共合作，毛澤東。

www.kci.go.kr

www.kci.go.kr